

次期 FM 무전기 등 27개 과제에 국방연구개발 장려금 6억5천만원 지급

(사진은 崔世昌 국방부 장관(오른쪽)이 국방연구개발 장려금을 지급하는 모습)



국방부는 1월 27일 차기 FM 무전기 등 27개 선정과제에 대해 과제당 1천만원에서 5천만원까지 총 6억5천만원의 국방연구개발 장려금을 지급했다(本文 계속)

연구개발 장려금은 연구요원들의 의욕 고취와 창의적인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1979년부터 시행되어오고 있으며, 기간중 7회에 걸쳐 총 1백68개 과제에 12억원의 장려금이 지급되었다.

이번 지급과 관련하여 66개 과제가 접수되었으며, 전력증강 기여도와 창의성, 경제성 등을 평가기준으로 하여 차기 FM 무전기 등 3개 과

제가 최우수과제로 선정되었고, 전투기용 브레이크 디스크 개발 등 22개 과제가 우수과제로 최종 선정되었다.

특히 무전기, 브레이크 디스크, 영상전송체계의 개발은 民需 기술이전으로 共用기술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장려금 지급은 개발 성공후 무기체제로 채택된 품목을 대상으로 하여 시행되고 있다.

國科研과 금성정밀 등 4개社 —

電子戰 대비 次期 무전기 國內개발 성공... 세계 4번째



세계 4번째로 개발한 주파수 도약형 次期 FM 무전기

現代戰 에서 전자전(ECM)의 비중이 크게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적의 전파교란을 피할수 있는 처전자전능력(ECCM)을 보유한 첨단 군용무전기가 국내 독자기술로 개발되었다.

이번에 개발된 주파수 도약(Frequency Hopping)형 차기 FM 무전기는 북한의 예상되는 전자전공세에 대비하여, 국방과학연구소(國科研)와 금성정밀 등 국내 4개社가 공동으로 지난 1985년부터 8년여 동안 각고의 노력끝에 이뤄낸 것으로, 17개월여의 軍 운용시험을 통해 성능의 우수성과 실용성이 입증되었다.

이에 따라 야전 지휘통신의 주종을 이루는 동급의 기존 무전기를 신형으로 대체할수 있게 되었으며, 이번 국방연구개발 장려금 지급에서 영예의 최우수과제로 선정되었다.

일체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한 이 신형 무전기는 적의 전과교란 상황에서도 음성뿐 아니라 데이터 전송까지 가능하며, 가용채널수도 기존 무전기 보다 2.5배 이상 증대되었다.

또한 스스로 고장(故障) 有無를 판단하는 자체 점검기능과 원격조종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인간공학적 요소 및 전술환경을 고려한 설

계로 무게와 크기가 동급 무전기중 세계에서 가장 가볍고 작다.

이번 次期 FM 무전기의 개발로 우리나라는 미국, 영국, 이스라엘에 이어 세계에서 4번째로 ECCM 무전기를 독자개발한 나라가 되었다.

또한 획득 및 정비예산의 절감이 예상되고 있으며, 앞으로 10억불의 수입대체 효과와 함께 기존 제품의 수출 등 수출시장 개척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일반에는 지난 '91년 11월 KOEX에서 열렸던 「'91 국제군수산업전(Defence Seoul '91)」에서 초도품을 선보인바 있다. (泰)

國產 반자동 권총 미국市場 본격 진출

우리 고유의 상표를 단 國產 권총이 미국의 콜트(Colt), 이탈리아의 베레타(Beretta) 등 세계 有數의 권총들과 어깨를 겨루며, 미국 민수용(民需用) 총기市場에 본격 진출한다.

大宇精密(대표: 權五 竣)은 그동안 軍用 小 火器類 생산을 통해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하여 미국 수출용으로 40구경 반자동 권총인 민수용 「DH 40」 개발을 성공리에 끝낸 것으로 알려졌다.

「DH 40」은 91년초 미국 총기판매상인 데이비드슨社와 정식 수출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지난해 4월부터 시제품 개발에 착수되었다.

최근 경찰청 총포화약 안전협회로부터 종합검사를 필함에 따라 본격적인 양산체제에 돌입하였으며, 금년 하반기에 출시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대우정밀은 올 봄 미국 휴스턴에서 개최될 「'93 Shot Show」 권총전시회에 「DH 40」을 출품, 세계시장에 선보일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개발의 주역인 嚴 赫 선임연구원은 시제작에 따른 공정추진의 지연과 탄환구입등에 애로가 많았음을 밝히면서, 『이번 개발 성공을 계기로 年間 1백50만정을 소화하는 미국 총기시장에 첫 디딤돌을 놓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泰)

▼금년 하반기부터 미국 市場에 수출될 DH 40



미국 특허 (PAT 5166458) 취득 (1992. 11. 24) ▼



서울엔지니어링, 中小기업 기술혁신 金賞 受賞



서울 엔지니어링이 공업진흥청과 중앙 경제신문이 지난해 처음으로 제정·시행하는 중소기업 기술혁신상 金賞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시상식은 12월 23일 공업진흥청 대강당에서 韓鳳洙 상공부장관, 辛國煥 공업진흥청장을 비롯한 관계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번 수상으로 서울엔지니어링은 표창 및 3백만원의 상금과 함께, 각종 세제혜택, 국립공업기술원의 각종 연구설비를 2년간 무료로 이용하며, 애로기술을 공업기반기술과제로 선정, 기술인력을 우선적으로 지원받는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참조: 本誌 92/5월호 p. 10)

이번 수상과 관련하여 서울엔지니어링의 吳世哲사장은 제조업에서 좋은 기술을 갖는다는 일은 기업발전의 필요불가결한 조건이나, 그것만으로는 충분치 못한게 현실임을 밝히면서, 기업경영에서 빠져리게 느낀점은 건실한 재무구조·유능한 인재·우수한 설비가 견비돼야한다는 평범하고도 중요한 사실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吳사장은 좋은 기술을 개발해도 상대는 선진·외국기업이나 국내 대기업인만큼 중소기업으로서는 엄청난 한계를 느끼지 않을수 없음을 지적하면서, 매출액의 3%이상을 연구개발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學·研·軍·官 국가안보정책 심포지엄 열려...

새 정부 출범에 즈음하여 「국가안보정책의 기조: 과거, 현재, 미래」를 주제로 한 심포지엄이 한국전략문제연구소(소장: 洪晟太) 주최로 1월 28일 서울 캐피탈호텔에서 學·研·軍 및 정부 관련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심포지엄의 제1부에서는 건국이후 현재까지의 국가안보정책을 분석평가했으며, 제2부에서는 미래의 정책기조를 제시하였다.

특히 金東成 교수(中央大 정치외교학과)는 「2000년대를 대비한 국가안보정책기조」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현재와 中·長期적 미래에 대비한 정책적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여 주목을 끌었다.

* 우리의 전략은 「양적 감축, 질적 증감」을 위해서 해군과 공군의 전력을 대폭 강화하고, 지상군의 정예화와 현대화를 위한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노력이 집중되어야 한다.

* 한미안보협력관계의 기능적 분업을 추진하면서 우리의 독자적 경보체제 및 정보통신체제의 확충을 위해 미국의 협력과 지원을 최대한으로 얻어내야 한다.

* 동북아(혹은 亞太지역)에서의 多者間 안보협력체제에 대비하여, 우리 나름의 비교우위를 가질 特화된 전력보유 가능성에 대한 연구와 실행 구상을 해야 한다.

* 軍 전력의 자주화는 군사기술의 자주성을 회복하는데서 실현되며, 이를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방위산업 육성과 연구개발비의 증대가 요구된다.

* 장기적으로 남북한의 단일적 민족연합전력에 관련된 새로운 문제가 등장할 것에 대비하고, 현행의 급변하는 안보환경 변화를 감안할 때 이에 대한 이론적 연구는 빠를수록 좋다.

* 국방정책의 효율성과 지속성이 보장될수 있음은 국민의 자발적 동원이 가능할 때이다.

사회갈등을 해소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사회를 실현해 나가는 것이 국가안보의 한 조건이 됨을 확신할수 있어야 한다.

* 총합안보를 위해 「국가안보회의」 산하에 「(가칭)안보정책실무위원회」 혹은 「사무국」을 두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약간의 국방, 외교, 통일, 통상관련 전문가와 국가안보회의를 구성하는 부서관관이 제청하는 해당 고위 정책담당관을 「안보정책실무위원회」에 상임으로 보임하여 안보관련정책을 심의, 조정, 통합하고 기획을 담당케 하는 제도 개선을 제안한다.

해 외 안테나

美 록히드社, 美 G.D.社 군용기 사업부문 인수

美 록히드社와 美 제너럴 다이내믹스(G. D)社는 12월 9일(미국 현지시간), 록히드사가 제너럴 다이내믹스사의 전술 항공기 사업부문을 15억 2천 5백만불에 인수하기로 최종합의 했으며, 오는 3월 인계인수가 완료될 예정으로 미국 정부의 검토승인 절차가 남아 있다.

이번 흡수와 관련하여 제너럴 다이내믹스社의 앤더스(William A. Anders) 회장은 『방위산업 수요에 따른 단순한 사업규모 축소로는 충분치 않으며, 유사 사업분야와의 통합이 규모의 효율성(Critical Mass)을 가져올수만 있다면 이는 필수적인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어 앤더스 회장은 Critical Mass는 규모의 경제 실현을 통해 고객들에게는 효율적이며 경제적인 생산을 보장하며, 종업원들에게는 보다 안정된 고용을 보장해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인수로 65억불 규모의 초대형 군용기 사업체가 탄생, 방산업체 최대규모이자 미국제 2의 방위산업체, 그리고 미국 제3위의 항공우주 제품 및 서비스 수출업체로서의 위상을 누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G. D社의 전술 군용기 사업부문을 관리, 운용하는 포트워스 사업부의 현 경영진과 종업원들은 그대로 유지될 예정이다.

제너럴 다이내믹스는 전세계 18개국에 판매된 F-16 전투기의 주계약자이며, 록히드사가 주도하고있는 미국 공군 F-22 차세대전투기 엔지니어링 및 제작, 개발계약의 약 3분의 1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미국 해군의 AX 차세대 전술 항공기의 기본개념을 개발중인 2팀중의 하나에 참여하고 있으며, 일본의 최신형 FS-X 전투기 공동개발에 참여하고 있다.

(자료제공 : (주)커뮤니케이션즈 코리아)

美 록히드 항공기의 新·旧世代(최신에 기종인 F-117 스텔스기와 제2차 세계대전의 총아 P-38)

